

충청남도 농어촌 응원운동 전개방안

안충섭 | 충남발전연구원 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연구원

1. 머리말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도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팽창하면서 각종 산업시설, 문화·복지시설, 소비시설, 교육시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농어촌은 산업화, 도시화에 의한 젊은층의 이탈과 WTO, DDA, FTA로 생존문제에 부딪히면서 발생한 이농현상은 농어촌사회의 고령화로 이어져 점점 농어촌공동체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생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도농교류와 농어촌체험 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의 거리를 좁히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식생활교육, 체험교육 등을 통해 농어업, 농어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나아가 도시와 농어촌의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좁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 및 체험생활 확대, 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웰빙 분위기가 더해져 농어촌을 찾는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민과 농어민의 기대치가 엇갈리는 한편, 기반 시설마저 부족해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충남 농어촌 응원운동은 침체돼 가고 있는 농어촌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도시와 농어촌의 활발한 교류 속에서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도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식생활 교육, 생태문화체험 등 상호 교류를 통해 농어민과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는 식량자급률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충청남도에서 3농혁신 과제 중 하나인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운동에 대한 현황과 계획, 그리고 이 사업을 지역에서 전개해 나갈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2. 도농교류 현황과 사례

지난 2008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농교류와 도농상생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뒷받침이 마련되고 있다.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도농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충남에는 “충청남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가 2009년 10월 제정되어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계획수립 등을 포함한 다양한 체험관광 활성화와 도농교류를 통해 지역활성화,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다.

법과 조례에 따라 다양한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의 공동체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 현황을 보면 2010년 말까지 도내에 81개소가 조성되어 7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농촌전통테마마을, 산촌생태마을,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표 1〉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현황

구분	계			02~06년도		07~09년도		2010년도	
	운영	조성	사업비 (억원)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충남	76	81	142	31	62	40	80	10	30
전국	503	516	1,042	190	380	252	504	74	158

* 2010. 7월 1일 중앙 점검 후 5개소(전국 13개소) 관리해제

정부주도의 정책 이외에도 각 시군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주시에서는 농촌 활력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도2촌 주말도시 육성, 사이버 공주시민제도, 공주 5도2촌 알밤특구 추진 등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도시민을 유치하여 체험, 관광,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산된 농특산물의 직거래를 통해 농촌의 소득증대와 도농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컴(Green-Come) 청양 운동은 ‘농촌, 녹색, 자연, 전원, 시골로 오세요’라는 의미로 도시민들은 웰빙 욕구를 청양에서 만족시키고 지역 주민들은 체험, 휴양, 숙박, 농축산물 판매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등 함께 도농상생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민간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농교류사업이 대표적이며 1사1촌 자매결연, 팜스테이 마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내 900여곳의 마을과 기관이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교류실적도 2010년 한 해 동안 70억원에 이르고 있다. 농산물 직거래 뿐 아니라 상호방문을 통한 교류증진, 봉사활동 및 마을시설 개선, 농촌 일손돕기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팜스테이 사업은 단순한 농가민박이 아닌 농가에서 숙박을 하며 농촌문화체험, 관광 및 지역축제와의 연계를 통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33개 마을이 운영중에 있다.

이외에도 각 충남도 및 각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제21, 농어민단체, 시민사회단체, 자생조직 등에서도 소규모로 도농교류 및 직거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청양 알프스마을

“2009년 1월 처음 얼음축제 했는데, 그때 1,800만원 적자보고 주민 갈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자신이 있었고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니까 믿어주시더라고요. 올 초(2011년)에는 구계역 때문에 얼음축제도 못하고 손해가 있었지만 주민들이 이해해주셨습니다.” 천장리 알프스마을 황준환 운영위원장의 말이다.

지난 2005년부터 청양군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벌이기 시작하여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알프스마을은 여러 가지 모범사례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사업초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마을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였으나 마을리더의 노력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꾸준한 사업발굴로 현재는 매년 20만명이 넘는 체험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지난해 축제 등을 통해 5억원의 총수익을 거둬 농사소득의 두 배가 넘는 수익을 거두고 있다.

철갑산 밑에 자리 잡은 이 마을에는 도농교류종합센터와 농촌체험실습장이 있어 이곳을 찾아오는 도시민들은 실습장에서는 감자, 고구마, 고추, 상추 등을 심고 가꾸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축구장, 수영장 등 부대시설도 갖추고 있다. 찾아드는 도시민들이 늘어나자 마을 주민들은 마을 축제를 기획해 여름에는 조통박축제를 열고 겨울에는 얼음분수축제를 열어 마을을 찾는 사시사철 교류와 체험을 활성화하고 있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이루고 있는 알프스마을이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은 마을리더의 노력과 주민의 화합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농어촌 마을에서 마을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열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완주군의 농촌활력과 지역경제순환센터

전북 완주군에서는 2008년 농정기획단에서 제출된 약속프로젝트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생산혁신, 유통혁신, 부채대책, 농촌활력증진, 노인복지증진 등 5개 분야 12개 시책을 내용으로 군비 500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역농정혁신을 위해 완주군에서는 로컬푸드를 정책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로컬푸드형 생산, 유통, 소비를 조직화하고, 추진조직의 정비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조례를 제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로컬푸드지원조례, 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 등 제도마련과 농촌 활력파, 지역경제순환센터와 같은 전담조직을 두고 있다.

공동체지원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CSA) 형태인 ‘건강밥상꾸러미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거점농민가공센터, 로컬푸드스테이션, 두레농장, 로컬푸드마켓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완주군의 사례는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 활성화 뿐 아니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조직, 제도 신설 및 세

부과제 추진 등 내생적 발전을 통해 도시민과의 거리를 좁혀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3. 일본의 농업농촌 활성화 국민운동과 효고현의 사례

일본은 식량자급률 저하, 농업생산 축소, 농촌지역 활력저하 등 농업농촌의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전체가 농업농촌을 지탱하는 사회의 창조'를 농정의 기본방침으로 확정하고 민간주도의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농산물 소비확대 국민운동

일본정부는 식량자급률 저하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07년 7월부터 농림수산성 장관의 정책자문기관인 「식료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회의」를 발족시켜 전략회의에서 도출된 안을 바탕으로 2008년 식량자급률 향상 국민운동 「Food Action Nippon」을 발족하여 전 국민적인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쌀 소비 확대를 목적으로 아침밥 먹기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 도농교류 확대 국민운동

도시와 농산어촌 간 사람들이 활발히 왕래하고, 쌍방의 생활문화를 즐기므로써 일본이 all right(健全)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all right 일본회의」는 민간기업, NPO, 공공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장으로 농산어촌을 활용하기 위해 학교, 지역사회, 행정이 일체가 되어 어린이 농산어촌 교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 숙박 체험활동, 식농교육 등을 하고 있다. 일본의 국민운동은 안전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농촌을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온전하게 물려주고자 하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효고현의 도시민 유치현황

효고현은 지리적으로 일본의 혼슈(本州)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현청소재지인 고베를 중심으로 한신, 하리마 지역은 효고현 인구의 90% 이상이 거주하며 철강, 조선, 기계 등 산업이 집중해 있는 대도시 지역인 반면, 다지마, 단바, 아와지 지역은 아름다운 산과 바다, 강 등 풍요로운 자연에 둘러싸여 농림수산업이 발달된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농산어촌지역 활성화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1995년 고베대지진 이후 도시발전의 한계를 인식해 효고현지사가 도시민의 농촌이주 및 도농상생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표 2〉 효고현의 도시민 유지현황(유학열, 2009)

형태	내용
다자연 거주사업	지방의 중소도시 혹은 농산촌 지역내 다자연지역에서 주말 휴일을 이용하여 체재하는 것을 말하며 체제 형태에 따라 2지역 거주형, 정주형, 영주형으로 구분, 우리나라의 5도2촌과 유사
시민농원	체제형 시민농원은 중산간지역의 주말형 체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풍토나 경관, 인정이나 인간성 나아가서는 일시적 체재나 반정주할 수 있는 시설
낙농생활센터	도시민에게 농업을 체험하고 접할 수 있는 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이 주된 목적이며 아울러 농업에 실제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교육시설의 목적

다자연거주란 “지방의 중소도시 혹은 농산촌지역 내에서도 특히 자연환경이 풍부한 다자연지역에서 주말·휴일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체제를 하거나 반정주(半定住)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1년 사업을 구상하고 2002년부터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도농교류거점시설 조성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다자연거주교류 거점정비지원사업을 실시하여 2010년까지 매년 1개소씩 총 6개소를 조성하였다. 사업은 시정 뿐 아니라 민간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시정 또는 지역과 협력하여 활동하는 NPO단체나 민간개발자가 도농교류시설이나 전원주택, 전원체재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우선계획수립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계획에 근거한 기반정비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다카정의 체제형 시민농원은 농촌에 주거를 정하고 지속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보다는 주말 체제가 중심이 된 양지역 거주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시설이다. 지자체에서 농림수산성 등 여러 농촌개발 관련 사업을 활용하여 조성하였으며 전체적인 시설관리 업무는 인근마을의 주민조직체에서 담당하고 시설임대료는 모두 1년단위로 임대계약을 하고 있다.

체제형 시민농원은 단순히 중산간지역의 주말형 체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풍토나 경관, 인정이나 인간성, 나아가 일시적 체재나 반정주를 통해 점점 고향을 잃어 가고 있는 도시주민에게 매력 있는 생활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낙농생활센터는 2006년 효고현에 의해 설립된 곳이다. ‘낙농(樂農)’은 농업을 즐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생활(生活)’은 말 그대로 삶을 의미한다. 센터는 도시민에게 농업을 체험하고 접할 수 있는 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이 주된 목적이며 아울러 농업에 실제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교육시설의 목적도 있다. 센터는 과거 농업기술센터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류관(레스토랑, 요리체험교실-빵, 두부, 된장 만들기 등), 직판장, 표고버섯 재배관(실내에서 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체험 공간 마련), 농기구 전시관-농기구 렌탈, 교육장, 레스토랑, 그린하우스 모판재배 공간, 과수원(포도, 매실 등)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단계로 도심에 작은 교실을 열어 직장인이 농업에 관해 기초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하고 2단계로 은퇴자들을 위한 농업교실을 40~50ha 정도의 농지를 이용해서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를 6개월 단위로 운영한다. 3단계로는 농업에 좀 더 관심있는 사람을 대상

으로 1년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3단계의 경우 비닐하우스와 농장을 제공하고 실제와 동일한 조건에서 일을 하게 된다. 연간 약 70명 정도가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낙농센터는 일반시민들이 농업을 체험하고 교육받는 과정을 통해 지역농산물 더 나아가 국내산 농산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지하게끔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농가를 위한 응원군을 만드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4.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운동의 전개방안

도시와 농촌의 상생은 농촌사회의 경제적인 문제해결 뿐 아니라 농촌공동체의 회복, 식량위기의 대안,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동안 도농교류 관련 정책들은 대부분 농촌 내부의 문제해결만을 위해 마을단위 시설개선이나 생산지원, 판매지원 등 도시 소비자를 인식하지 않고 진행된 면이 있다. 앞으로는 도시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상호보완, 상생협력을 목표로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필요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도농상생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다양한 마을기꾸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시설투자 이전에 주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역량강화와 마을리더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매결연, 직거래행사 등 이벤트 행사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류를 통해 도시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와 농촌체험 활동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도시민은 농촌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인 동시에 농어촌의 응원군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도농교류 사업은 상호보완, 양방향적, 상호만족 등의 관계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 초·중학생 농·산·어촌 체험교육 및 식생활 교육

교육의 장으로 농산어촌을 활용하기 위해 어린이와 학생을 대상으로 장기 숙박체험활동, 산촌유학 시범사업 등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농어촌의 중요성을 체험을 통해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식생활교육 지원법 시행에 맞춰 지역 상황에 맞는 식생활교육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고, 청소년들에게 지역 먹거리, 지역농업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재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 귀농귀촌의 증가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수립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에 따른 전원생활형 귀농과 젊은 세대들의 자발적 귀농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귀농귀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귀농인구도 농촌 활력의 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 우선 귀농계획이 있는 예비 귀농인에 대해서는 정보제공과 예비 활동을 통해 마을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후 지속적인 기술지원과 지역사회 적응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 현재 각 지역별로,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귀농귀촌 정책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맞춤형 귀농정책으로 전환해가야 할 것이다.

● 범국민 농어촌 응원운동 전개

일본에서 하고 있는 「Food Action Nippon」과 「all right 일본회의」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국산농산물 소비촉진 운동, 아침밥 먹기운동, 도농교류 활성화 운동 등 범국민적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 행정주도의 일방통행이 아닌 소비자, 기업, 기관, NGO, 공공기관 등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농어촌 응원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도농교류 활성화와 농어촌 응원운동은 도시민과 농어민의 교류를 통해 농어촌마을 활성화,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지원과 민간영역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도농교류, 마을만들기, 농촌체험, 식생활교육, 1사1촌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성과가 미미한 곳도 있고, 적은 예산이지만 성과를 내는 곳도 있다. 중요한 것은 추진주체의 의지와 상호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이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마을주민간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도시민과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마을리더를 적극 육성해서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민과의 교류, 판매행사, 문화행사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

농어촌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농어민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고있다. 또한 농업농촌은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할 소중한 자산임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도민전체가 농어업, 농어촌의 가치를 인식하고 상호보완과 협력을 통해 상생해야 할 것이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는 교육과 체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인식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준호(2011), 희망제작소 커뮤니티비즈니스연구소 <http://blog.makehope.org/cb>
 완주군(2011), 지속가능한 지역농업과 로컬푸드(2011로컬푸드 전국대회 자료)
 유학열(2009), "일본 농촌의 도시민유치현장을 가다" 충남발전연구원
 최동주(2008), "도·농교류와 농촌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공사
 충남발전연구원(2010), 제1차 도시농어촌 활성화 연구회워크숍 자료
 충청남도(2011), 충청남도 3농혁신 기본계획
 황명철(2010), NHERI 리포트 제132호 "일본의 농업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효고현 홈페이지, <http://web.pref.hyogo.jp/FL/korean/index.html>